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8월 12일(음력 6월 22일) 수요일(주간)

사람 낙동강 순례 나선 지율 스님

"우리가 江이 됩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안동서 발대식 '출발'
낙동강 3.14 홈피 개설

우리 산하의 뭇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목숨을 건 단식정진을 벌여온 지율 스님이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순례길에 나섰다.

지율 스님은 7월 31일부터 경북 안동 병산서원 백사장에서 환경문화제를 열고 낙동강 순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환경영화제에는 독립영상패 '평상필름' '습지와 새들의 친구', 대안문화단체 '재미난 복수', 생태공부모임 '구들장', 부산녹색연합 등 단체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율 스님이 제공한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공간 초록'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다.

순례 발대식에서는 낙동강과 안동 병산을 배경으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환경다큐 '샨샤댐'을 상영했고, 한국여자수도회 오영숙 수녀가 4대 강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낙동강 3.14'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 후 다음날인 8월 1일 안동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을 거쳐 구담습지까지 설정된 시범구간 10㎞을 걸으며 낙동강의 생태와 문화를 탐사했다.

이에 앞서 지율 스님은 이들 단체들과 '낙동강 3.14'를 결성, 홈페이지(www.nakdongkang314.org)를 개설했다. '우리가 산이, 강이 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낙동강 순례코스 10곳을 공개했다.

1구간은 안동~옥동, 2구간 병산~하회, 3구간 회룡포~삼강, 4구간 상주~낙단, 5구간 구미~칠곡, 6구간 왜관~대구, 7구간 성주~고령, 8구간 합천~남지, 9구간 함안~밀양, 10구간 양산~부산이다.

낙동강 순례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는 도보순례 각 구간별 지도를 올려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참가 가능하게끔 했다. 지율 스님은 도보순례 지도작업을 위해 지난 봄 사패산 단식 이후 은거하던 경북 영덕에서 나와 낙동강 전역을 자전거와 도보로 답사해 자료를 정리한 바 있다.

스님은 순례에 앞서 '우리가 강이 되자'는 글을 보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부산지역 환경운동가들과 낙동강 생태를 보전하는 '낙동강 3.14'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병상의 노모가 자식의 발걸음을 기다리듯, 지금 강은 우리가 찾아와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의 발걸음이 자연을 치유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시원한 여름 렛츠 通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는 8월 6~9일 경기도 여주 신륵사와 여주 청소년수련원 등 경기남부지역 일대에서 2009 여름대회 '시원한 여름 렛츠 通'을 개최했다. '소통'을 모토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대학생 불자 93명이 참가해 소통의 주인으로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소통을 주제로 한 토론과 래프팅, 미션 수행,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7일 여주청소년수련원 계곡에서 참가자들이 래프팅을 하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녹색에너지 시대 온다

조계종 사회부 '사찰에너지 사용…' 전문기관에 연구 위탁

'녹색성장(綠色成長, Green development)'. 정부는 2008년 주요 정책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며, "에너지 · 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1년 여가 지났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녹색피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요즘, 종교기관 최초로 조계종이 신 · 재생 에너지 활용 연구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는 7월 29일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신 ·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를 전문연구진에 위탁하고 사찰에 신 ·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이 에너지관리공단과 LG전자 연구진과 공동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1차로 올해 10월까지 양산통도사(태양광, 지열)와 포항 천곡사(태양광, 지열), 김제 금산사(바이오매스, 화학적 에너지로 생물을 사용하는 것)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사용중인 사찰을 포함한 도심 및 산중사찰, 선원 등 주요 사찰 10곳을 표본으로 에너지 사용현황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후 표본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찰에너지 절감대책 및 효율성을 연구하고, 사찰에 적합한 신 · 재생 에너지 기술 적용을 시험하게 된다. 부수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정책 및 각종 사회동향 연구조사와 사찰의 온실가스 방지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분석 및 모범창출 방안도 연구된다.

2010년 1월까지 이어질 정책연구 및 자문회의는 환경전문가인 부산대 이병인 교수를 연구총괄로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서백호 팀장(사찰에너지 진단), LG전자 CAC 사업팀 윤선우 · 방진원 차장(사찰내 신 · 재생에너지적용방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신준환 박사(대체벌목 및 대체조림방안), 동국대 이영경 교수(신 · 재생에너지 적용 및 조림에 따른 사찰경관연구) 등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세영 스님은 "이번 신 ·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연구는 2008년부터 실시해온 '사찰림보호 및 활용방안 정책연구'가 올 12월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향후 사찰 운영에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계는 이번 연구가 고비용 · 저효율인 사찰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종단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사찰에서 불기 시작한 녹색의 바람이 참다운 녹색성장의 밑거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社告 정법 잣대로 한국불교 재보자

정법불교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8월 14~18일 실상사 일원에서 개최

초기 · 대승 · 선 · 현대불교가 하나로 관통되는 불교관을 확립하고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을 형성해 현대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야단법석은 법사스님의 강의와 각본도 연출도 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무비 스님 움직이는 선원 조실

혜국 스님 전국선원수좌 대표

향봉 스님 움직이는 선원 열중

도법 스님 움직이는 선원 열중

참가 신청 · 문의
-실상사 종무소: 063-636-3031 · 3191
-입금계좌: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실상사)

주최: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 주관:실상사 · 후원: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Hot…… || 금주 24면 발행


현봉 스님 12선지식

김종규 04종합

한기늠 17문화

법구경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패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찬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